부모와의 의사소통, 교사와의 관계 및 교내외 활동이 청소년의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

Influences of Communication with Parents, Relations with Teachers and Intramural / Extramural Activities on Peer Relationships

김 영 미**
Kim, Young-mi
심 희 옥***
Sim, Hee-og

ABSTRACT

This study explored how communication with parents, relations with teachers and intra- and extra-mural activities were related to peer relationships. Data were collected from 453 middle school students in the city of Iksan. Results showed that students with more harmonious communication with parents reported more desirable peer relationships. More familiar and friendly relations with teachers was also associated with more harmonious peer relationships. As adolescents appeared more vigorous in intra- and extra-mural activities, they had friendlier peer relationships. Gender, communication with fathers, relations with teachers, and intra- and extra-mural activities had significant effects on peer relationships. Relations with teachers was the best predictor for peer relationships.

• 또래관계(peer relationships)
부모와의 의사소통(communication with parents)
교사와의 관계(relations with teachers)
교내외 활동(intramural / extramural activities)

---

*본 논문은 2000년도 군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의 일부임
**이리 동중학교 교사
***군산대학교 생활과학부 주거 · 가족아동전공 조교수

Ⅰ. 서 론

청소년기는 신체적 · 심리적으로 새로운 출발이 시작되는 제2의 탄생기라고 할 수 있다. 청소년은 잠재적인 인적자원으로서 미래사회의 주역이 될 귀중한 존재이며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발달과업을 수행해야 할 과도기적 위치에 놓여 있다. 특히 청소년의 사회적 관계망 내 다양한 관계들은 각각 고유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데 그 중 또래관계의 경우는 특히 아동 중기를 전환점으로 하여 점차 청소년 발달에 있어 중요한 관계로 등장하게 된다(임정하, 1996; Berndt, 1979; Petersen, 1988).

한편 청소년기에는 부모와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부모에 대한 신뢰도 감소하기 때문에 교우관계에 보다 더 많은 비중을 두게 되고 교우관계를 통하여 자신에 대한 불안감과 불확실성을 안정감과 정체감으로 바꾸어 나가게 된다(김미경, 1996). 청소년들은 또래들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확인하며 보다 많은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부모보다 친구들에게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 또래들로부터 인정받고 수용되는 청소년은 자신감과 더불어 자신에 대한 긍정적 가치를 갖지만 또래들로부터 거부당한 청소년은 자신에 대한 불신으로 인하여 대인관계에서 회피경향을 띠게 된다(이춘재와 곽금주, 2000; Austin과 Joseph, 1996).

최근 들어 우리 사회에서 청소년의 상당수가 부모와의 갈등, 학교폭력 등 인간관계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로 고민하고 있으며 집단 따돌림과 괴롭힘의 문제가 심각하게 논의되면서 이들의 대인관계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는 가운데 왕 따돌림의 약어인 '왕따'는 요즘 청소년들 사이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은어이다. 또래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청소년들은 여러 가지 사회 · 정서적 적응에 있어 어려움을 경험하며, 동일 연령의 다른 아이들에 비해 훨씬 더 걱정스러워하고, 불안해하며, 우울해하고, 상대적으로 더 낮은 자아 존중감을 갖는다(도현심, 1998, 1999; 심희옥, 1999; 이해경과 김혜원, 2000; 최보가와 임지영, 1999; 한종철, 김인경, 김은정, 박윤창과 정태연, 1999; Olweus, 1993; Parkhurst와 Asher, 1992; Rigby, 1996). 이들은 반복되는 또래 괴롭힘에 노출되면서 학교 가는 것을 무서워하게 되고 학교에서 다른 친구들과의 일상적인 상호작용에 참여하는 데에도 어려움을 겪게 된다(동아일보 2000년 3월 13일자).

또한 청소년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행동양식을 나타내 보이는가 하는 것은 가정에서의 인간관계를 중심으로 하여 형성된 행동양식의 연장이라고 할 수 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가정이라는 환경 속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인간의 신체적, 정신적 성장발달에 있어서도 가정의 중요성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인간과 인간 사이의 상호 관계는 의사소통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가족들은 의사소통에 의하여 상호 연결되어 가정을 구성해 간다. 즉 가정에서는 가족원들이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여러 가지 상호작용을 통하여 하나의 집단으로 목적을 향해 협동할 수 있는 것이다.

청소년기의 자녀는 부모로부터 독립하려는 심리적 이유 현상이 있어 부모-자녀간의 대화가 어렵고 세대간의 의견차이가 심하게 된다(Olson, 1983). 그러나 이러한 대립과 갈등을 경험하면서도 청소년은 부모의 이해와 지도를 동시에 필요로 하므로 자녀의 원만한 성장과 사회적응을 위해서는 부모와 자녀간의 적절한 의사

소통이 필요하다(서명성, 1998).

좋은 의사소통 관계는 하나의 사회적 지지로 작용하여 가정 내에서 적응을 잘하는 청소년은 학교와 지역사회에서도 적절히 역할을 해내리라고 기대할 수 있으며, 청소년기 자녀의 비행은 부모와의 거리감 있는 의사소통으로 인한 상호이해 부족 및 통제력 약화 그리고 바람직한 행동지도의 기회부족으로부터 형성된다고 한다(민하영, 1991).

의사소통을 명확히 한다는 것은 항상 생각을 일치하게 만들지는 않으나 일치하지 않는 면을 이해하고 인지하는데 도움을 주며, 이러한 이해는 부모-자녀 관계에서 중요하다. 부모와 자녀가 대화를 함으로써 마음의 연결을 이루며 상대의 인성을 알게 되고 상대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된다(김미호, 1989). 따라서 가정생활을 원만하고 행복하게 영위하는데 있어서 부모와 자녀간의 의사소통은 필수적이며 매일의 생활에서 가족들간의 감정을 유지시켜주고 가족의 상호작용을 조장시켜 주어 자녀의 사회화와 또래교육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김성태, 1985).

조은경(1984)은 사춘기 자녀들의 행동특성을 통제하기 위해 부모와 자녀간의 개방적인 의사소통이 이루어져야 하며, 상호간의 의사소통의 기술을 개발하려는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하였고, 김정선(1995)은 청소년기 가족은 부모나 자녀가 서로에 대한 기대와 가치 그리고 역할과 책임의 새로운 이해와 재조정이 요구되며 부모와 청소년의 상호이해를 위해서는 서로의 사고방식이나 가치관이 언어나 기타의 수단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충분히 전달될 수 있는 의사소통이 더욱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 또한 이영분(1983)은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이 기능적이려면 상급지위에 있는 부모가 개방, 감정이입, 지지, 긍정 및 동등성의 자세를 갖고 적극적인 경청을 보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이 자녀의 자아개념 및 사회성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들이 있다. 황순규(1998)는 초등학교 6년생 대상의 연구에서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사회자아를 비롯한 여러 자아개념과 관련이 있었음을 보고한다. 김미호(1989)는 부모와 자녀간의 의사소통이 학동기 자녀의 사회적 행동 특성과 정적으로 관련되어 있었고, 아버지보다는 어머니와의 의사소통이 자녀의 사회적 행동 특성과 더 관련이 깊었다고 한다. 또한 이연숙(1991)은 부모-자녀관계에서 상호간의 대화는 청소년기의 자녀가 사회화를 겪으면서 자아를 확립하고 사회의 원만한 적응능력을 키우는 데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서명성(1998)은 중학생 대상의 연구에서 부모와의 긍정적 대화가 교우관계와 정적으로 관련되어 있다고 한다.

근대사회에 들어오면서 가족의 청소년에 대한 사회화 기능이 약화되면서 상대적으로 학교가 그 책임을 맡는 집단으로 대두되었다. 청소년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게 된다. 그러므로 학교는 그들의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영역이고, 공적 장소로서 학생들은 이 곳에서 많은 것을 익히며 사회적 경험을 한다(송현섭, 1986). 특히 교사와의 다양한 관계를 중심으로 학생들의 집단의식이 발달하고, 그 집단 속에서 여러 가지 형태의 또래관계가 발달한다고 볼 수 있는데 교사가 제공하는 심리적 환경을 통한 학생과의 인간관계가 학생들에게 학교생활에서의 보람과 희망을 심어주고 긍정적인 자아개념 형성에 도움을 주며, 불안을 감소시켜 정신건강에도 도움을 주어 학생들은 교사와의 원만한 인간 관계 속에서 학교생활에 보다 잘 적응하고 더 높은

성취를 보인다고 한다. 반대로 교사와 관계가 좋지 않은 학생은 자신이 학교생활에 부적합하며 열등하다고 느끼게 되고 이 느낌은 역작용을 일으켜 교사도 그 학생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되어 학생은 실패와 부정적 자아개념으로 위축되고 부끄러워하며 죄책감과 신경증을 가질 수 있으며, 결국 학교에 대한 회피, 고의적 결석, 낮은 동기, 태만까지도 낳을 수 있다고 한다. 이처럼 중요한 학생 상호간의 인간관계는 대부분 교사에 의해 형성되거나 조정되므로 학생 상호간의 인간관계를 긴밀하고 바람직하게 형성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교사-학생의 인간관계가 바람직해야 학교교육이 효과적 일 수 있다고 한다(황순필, 1997).

같은 맥락으로 Dusek과 Joseph(1983)는 학급 내의 사회조직 중 하나인 교우집단은 학급에 존재하는 사회·심리적 환경으로부터 많은 영향과 지배를 받게 되는데 이러한 사회·심리적인 학급 분위기는 교사 자신에 의해 많이 좌우되어 교사-학생간의 인간관계가 학급 내에서 교우관계에 강력한 영향을 발휘한다고 하고, 김주엽(1992) 역시 교사의 피드백이 또래선호에 영향을 주는 것을 발견했다. 교사가 수업 중이나 학교생활 중에 학생들의 활동을 처리하는 태도는 그 학생뿐만 아니라 다른 학생에게까지 영향을 주게 되며 학생들이 서로에 대해 지각하는 정도는 실제 교사의 행동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을 수 있다고 한다.

이런 연구결과는 학생의 인성발달이나 긍정적 자아개념 형성, 학교생활 적응 및 또래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교사와 학생의 바람직한 인간관계의 중요성을 재삼 인식하게 하는데, 이것은 교사의 지시를 무시하고 급우를 폭행하며 심지어 교사를 고발하는 학교붕괴 현상이 일고 있는 우리 나라 현 시점에서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할 주제로 사료된다.

또한 학교는 학생이 변화하는 사회적 환경 속에서 적절한 적응능력을 길러 나가게 해주는 역할을 의도적 계획적으로 수행해 온 기관으로 그 속에서 학생들은 교과활동, 특별활동, 학급활동 및 기타 행사 등을 통해 자기의 욕구를 합리적으로 해결하며 만족감을 느끼는 한편 다양한 또래관계를 체험하면서 그들 나름대로 대인관계 기술을 길러간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입시와 교과위주의 학교교육은 또래끼리의 공동체 의식보다는 경쟁과 대립의 관계를 형성시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우리의 교육 현실 속에서 청소년들이 또래집단에서 여러 활동을 통해 대인관계 적응력을 기르는 일은 더욱 중요하다고 본다.

그리고 청소년들의 또래간 상호작용이 주로 학교현장에서 이루어지고 학교생활이 대부분 교실 안에서 이루어지는 점을 감안할 때 교실 안에서의 임원활동(학교, 학급사회에서의 임원)과 책임활동(학교, 학급활동, 교과활동 중에 주어진 책임)을 통해, 그리고 활동영역의 범위를 넓힐 수 있는 청소년 단체활동(보이스카우트, 걸스카우트, 청소년연맹, RCY 등)을 통하여 청소년들은 교과활동의 정해진 테두리에서 벗어나 보다 자유롭게 활동하는 가운데 또래사이의 협동심, 책임감, 봉사정신, 질서의식, 자주성, 준법성, 사회성의 향상을 위해 중요한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다고 본다.

Brown과 Mount(1989)는 또래집단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지위는 청소년기 자아 존중감 형성에 중요한 요인이 되어 각종 운동이나 학교활동에서 지도자가 되는 청소년들은 자아 존중감이 높아지는 반면, 지위가 낮은 청소년은 자아 존중

감이 낮아진다고 하였다. 즉 교실 안에서 임원으로서의 지위는 조직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그 조직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또래와 상호작용하는 기회와 시간을 제공한다. 임원활동을 통해 또래들과 의견충돌 및 여러 가지 갈등에 직면해보며 청소년은 관대함과 포용력을 기를 수 있다. 즉 교실에서의 임원활동은 또래들과 원만하게 지낼 수 있는 경험을 쌓게 하고 사회적 기술을 획득하게 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또한 학교활동과 교과활동 중에 청소년에게 주어지는 책임활동은 자신이 계획하고 실행해 나가는 책임활동 과정을 통하여 또래간 상호 접촉기회가 제공되는 가운데 청소년은 자기중심적 태도에서 벗어나 집단의 중요성, 또래에 대한 책임감, 봉사정신, 협동심 등 교우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방법을 깨우치고 사회 일원으로 갖추어야 할 자질을 익혀나가고 또한 인내력을 기를 수 있다.

그리고 청소년의 활동영역의 범위를 넓힐 수 있는 청소년 단체활동은 집회활동, 봉사활동, 야영활동, 극기훈련, 레크레이션 등 다양한 활동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또래, 선배, 지도자 등 여러 계층의 사람과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 학교교육이 지니고 있는 한계와 제한을 극복하고 보충하여 바람직한 성격형성에 도움을 주고 대인관계 기술을 익힐 수 있게 한다.

이규환(1976)은 청소년 단체활동의 교육적 의의로 민주주의 정신의 학습, 안정감 획득, 문화학습을 통한 동일성의 형성, 개인역할의 발견 등을 들고 있고, 황복연(1984)은 청소년 단체활동을 하는 청소년은 활동을 하지 않는 청소년보다 원만한 대인관계, 사교성, 친절성에서 차이가 나이 활동이 사회성 향상에 영향을 주었다고 하며, 권이종(1988) 역시 청소년 단체활동은 청소년의 학습, 인간관계, 신체적, 정서적, 언어적 발달, 지도력 배양, 여가 선용 등에 크게 도움이 된다고 한다. 또한 Heinz와 Sippola(2000)는 학교에서 교과과정외 활동이 긍정적 자아 존중감과 사회적 상황에서의 대처능력을 향상시켜서 청소년의 우울감과 고독감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한다.

학교를 통해 맺어진 또래관계인 교우관계에 대한 국내 연구들은 학급내의 인기도를 중심으로 하여 자아개념, 학업성취, 성격특성, 사회적 행동 및 부모의 양육태도와의 관계가 주류를 이루고(이경수, 1991; 김기선, 1994), 학교내 임원활동이나 책임활동 및 청소년 단체활동과 또래관계에 대한 연구는 소수이다. 따라서 교내외 활동경험이 또래와의 관계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탐색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가정내외 변인들인, 부모와의 의사소통, 교사와의 관계와 교내외 활동이 청소년의 또래관계에 미치는 상대적인 영향력은 어떠할까? 상대적인 영향력은 남녀간에 차이가 있을 것인가? 부모와의 관계와 학교내외 생활과 관련된 경험 중 어느 변인이 청소년의 또래관계에 더 중요한가를 탐색하는 일은 주요 변인들간의 상대적인 관계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며, 더 큰 관심과 생활개선이 필요한 청소년의 생활영역을 알게 해주어 청소년에게 더 적절한 지도나 도움을 줄 수 있게 해준다.

요약하면, 청소년기에 형성된 그릇된 또래관계는 청소년의 성장과 발달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의 바람직한 또래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가정과 학교생활 변인을 탐색하는 일은 청소년의 바람직한 성장을 위한 환경을 제공하는데 중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

에 본 연구는 청소년의 원만한 또래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가정과 학교생활 변인으로 부모와의 의사소통, 교사와의 관계 및 교내외 활동을 탐색하고 이들간의 관계를 밝혀 가정에서의 자녀교육과 학교에서의 청소년 교육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탐색하고자 하는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원만한 정도에 따라 또래와의 관계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2. 교사와의 관계가 원만한 정도에 따라 또래와의 관계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3. 교내외 활동경험 정도에 따라 또래와의 관계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4. 1) 성, 부모와의 의사소통, 교사와의 관계와 교내외 활동이 또래관계에 미치는 상대적인 영향은 어떠한가?

2) 성별로 부모와의 의사소통, 교사와의 관계와 교내외 활동이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익산 시내에 소재한 4개 중학교 남녀 1, 2학년 학생으로, 대상 학교의 선정은 중학교가 모두 평준화되기는 하였지만 지역에 따라 다소 사회·경제적 차이가 날 것으로 판단되어 상·중·하류계층이 골고루 분포될 수 있도록 하였다. 각 학교에 배부된 질문지는 1학년 245명과 2학년 245명으로 총 490부 중 482부가 회수되었고, 이 중 반응이 불성실한 질문지를 제외한 453부를 자료분석 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표 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N = 453)

변 인	내 용	대상자	백분율(%)
성	남	249	55.0
	여	204	45.0
학년	중학교 1학년	235	51.9
	중학교 2학년	218	48.1
부모 유무	양친 모두 계신다	440	97.2
	편부 또는 편모이시다	6	1.3
	두분 중 한 분이 계부나 계모이시다	7	1.5
아버지의 연령	40세 이하	72	20.3
	41세 - 45세	268	59.3
	46세 이상	92	20.4
어머니의 연령	40세 이하	252	5.8
	41세 - 45세	169	37.4
	46세 이상	31	13.2

변 인	내 용	대상자	백분율(%)
아버지의 학력	고졸 이하	304	67.0
	전문대졸 및 대학 졸업	127	28.1
	대학원 이상	22	4.9
어머니의 학력	고졸 이하	373	82.7
	전문대졸 및 대학졸업	75	16.7
	대학원 이상	3	0.7
아버지의 직업	무직 및 단순노무직	60	13.3
	서비스, 판매 및 사무직	297	65.5
	관리 및 전문직	75	16.5
	기타	16	3.5
어머니의 직업	무직 및 단순노무직	271	60.2
	서비스, 판매 및 사무직	150	33.3
	관리 및 전문직	22	4.9
	기타	7	1.6
아버지와 1일 대화시간	10분 미만	96	21.3
	10분 -30분 미만	137	30.4
	30분 - 1시간 미만	102	22.6
	1시간 - 2시간 미만	66	14.6
	2시간 이상	50	11.1
어머니와 1일 대화시간	10분 미만	40	8.8
	10분 -30분 미만	70	15.5
	30분 - 1시간 미만	118	26.2
	1시간 - 2시간 미만	94	20.8
	2시간 이상	129	28.6
아버지와의 의사소통만족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29	6.4
	만족하지 않는다	62	13.7
	보통이다	175	38.7
	대체로 만족한다	123	27.2
	매우 만족한다	63	13.9
어머니와의 의사소통만족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8	1.8
	만족하지 않는다	39	8.6
	보통이다	118	26.0
	대체로 만족한다	167	36.9
	매우 만족한다	121	26.7

2. 측정도구

1) 또래관계

또래관계를 측정하기 위하여 다음의 세 가지 연구에서 사용한 문항들을 이용하여 하나의 척도로 구성하였다. 첫째, 서명성(1998)의 조화로운 교우관계 측정을 위한 8문항으로, 문항의 예는 "학교에서 반 친구들과 잘 어울려 생활한다"

이다. 둘째, Dubow와 Ullman(1989)이 만든 Social Support Appraisals Scale을 번안해 친구지지 15문항 중 반복적으로 묻는 문항을 뺀 10문항을 사용하였다. 문항의 예는 "친구들이 나를 정말 좋아한다"이다. 셋째, Asher와 Wheeler(1985)의 외로움척도를 임지영(1997)이 수정 보완한 문항 중 8문항으로, 문항의 예는 "나는 학교에서 함께 놀 친구가 없다"이다. 총 26문항의 Cronbach Alpha는 .91이고 측정은 Likert식 5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항상 그렇다'로 점수가 높을수록 또래와 원만한 관계를 맺고 있음을 의미한다.

2)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된 도구는 이연숙(1991)이 번안한 Barnes와 Olson(1982)의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척도(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Scale)이다. 이 척도는 20문항으로 부모 각각에 대해 자녀가 지각하는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의 개방성 정도와 문제성 정도를 측정한다. 개방형 의사소통 문항의 예는 "나는 부모님께 나의 생각을 주저하지 않고 의논한다"이고, 문제형 문항의 예는 "부모님은 말씀하지 않아도 될 것을 나에게 말씀하시곤 한다"이다. 측정은 Likert식 5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항상 그렇다'로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이 원활하고 건강함을 의미한다. Cronbach Alpha는 부의 경우는 .69이고, 모의 경우는 .73이었다.

3) 교사와의 관계

교사와의 관계를 측정하기 위하여 번안한 Dubow와 Ullman(1989)의 Social Support Appraisals Scale에서 교사의 지지를 묻는 5문항과 조금석(1997)의 연구에서 학교생활 적응검사 문항 중 교사와의 관계를 묻는 5문항을 사용하였다. 측정은 Likert식 5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항상 그렇다'로 점수가 높을수록 교사와의 인간관계가 원활하고 신뢰감이 깊음을 의미한다. 문항의 예는 "선생님들은 너무 명령적이고 무섭다"이다. 총 10문항의 Cronbach Alpha는 .84이었다.

4) 교내외 활동

교내외 활동은 학교에서의 임원활동과 책임활동 그리고 청소년 단체활동의 경험을 묻는 것으로 각 활동별로 한 문항씩 세 문항을 사용하였다. 측정은 Likert식 4점 척도로 '전혀 없다'는 1점, '조금 있다'는 2점, '꽤 있다'는 3점, '아주 많다'는 4점으로 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학교활동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였음을 의미한다. 문항의 예는 "나는 책임활동(여러 교과활동 중에 주어지는 책임, 주번, 조사팀장, 청소구역 대표 등등) 경험이 _____" 이다.

3. 연구절차 및 자료분석

본 연구의 예비조사는 1999년 11월 12일에 중학교 1학년생 20명을 대상으로 본 연구자가 직접 실시하였으며 예비조사의 결과를 참고로 본 조사용 질문지를 작성하였다. 본 조사의 실시는 11월 25일부터 12월 5일 사이에 연구자가 직접 실시하거나 선정된 학교의 담당교사에게 미리 연구의 취지와 유의사항 및 실시방법을 설명한 후 직접 수업시간 중에 질문지를 배부해 작성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분석은 SPS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부모와의 의사소통과 교사와의 관계 그리

고 교내외 활동경험이 또래관계와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분산분석(ANOVA)을 하였고, 사후검증으로 Duncan의 Multiple Range Test를 적용하였다. 또한 성, 부모와의 의사소통, 교사와의 관계 그리고 교내외 활동경험이 또래관계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하였다.

III. 연구결과

1.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원만한 정도에 따라 또래와의 관계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원만한 정도에 따라 또래와의 관계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부모와의 의사소통 정도에 따라 변량분석을 하였다. 부모와의 의사소통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부모와의 의사소통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기준으로 X>M+ SD 인 경우는 상위 집단, M−SD〈X〈M+SD 인 경우는 중위 집단 그리고 X<M-SD 인 경우는 하위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표 2>에 의하면, 또래관계는 부모와의 의사소통 상·중·하 정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p<.0001)를 나타냈다. 이는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긍정적이고 원활할수록 또래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부와 모, 각각과의 의사소통과 또래관계를 분석해도 부모와의 의사소통 상·중·하 정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p<.0001)를 보였다.

<표 2> 부모와의 의사소통과 또래관계에 대한 변량분석

변인	부모와의 의사소통	M	SD	F	Duncan
또래관계	상	105.33	11.96	15.6****	A
	중	99.70	13.87		B
	하	91.66	17.80		C

****p<.0001

2. 교사와의 관계가 원만한 정도에 따라 또래와의 관계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교사와의 관계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기준으로 상·중·하위 집단으로 나누어 변량분석을 하였다. <표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교사와의 관계 정도에 따라 또래관계가 유의미한 차이(p<.0001)를 보였다. Duncan test에 의하면, 교사와의 관계가 상인 집단이 중·하인 집단보다 또래관계가 좋게 나타났고, 교사와의 관계가 중·하위 집단은 통계적으로 같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즉 선생님과의 관계가 호의적이고 긍정적일수록 또래관계도 원만하게 유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 교사와의 관계와 또래관계에 대한 변량분석

변인	교사와의 관계	M	SD	F	Duncan
또래관계	상	108.84	16.43	19.28****	A
	중	98.79	13.34		B
	하	95.01	14.58		B

****p<.0001

3. 교내외 활동경험 정도에 따라 또래와의 관계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교내외 활동경험 정도와 또래와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학교에서의 임원활동, 책임활동 그리고 청소년 집단활동 경험 세 가지를 측정하여 총 교내외 활동 경험 정도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기준으로 상·중·하위 집단으로 구분하여 변량분석을 하였다.

<표 4>에 나타난바와 같이, 교내외 활동 상·중·하 경험 정도는 또래관계와 유의미한 차이($p<.0001$)를 나타내었다. 교내외 활동 경험이 상인집단이 중인집단보다, 중인집단이 하인집단보다 또래와 원만하고 원활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을 나타냈다. 즉 교내외 활동경험이 많을수록 또래와의 관계가 잘 이루어지고 있으며, 교내외 활동경험이 적을수록 또래관계에 어려움이 있음을 보여 준다.

<표 4> 교내외 활동경험 정도와 또래관계에 대한 변량분석

변인	교내외 활동	M	SD	F	Duncan
또래 관계	상	104.87	14.48	10.75****	A
	중	99.38	14.18		B
	하	94.77	14.33		C

****$p<.0001$

4-1. 성, 부모와의 의사소통, 교사와의 관계와 교내외 활동이 또래관계에 미치는 상대적인 영향은 어떠한가?

변인들간의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표 5>에 의하면,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교사와의 관계가 더 원만하고($r=-.22$, $p<.0001$), 교내외 활동에 더 참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r=-.10$, $p<.05$). 부와 모와의 의사소통은 서로 관련이 깊은 것으로 나타났고($r=.81$, $p<.0001$),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원활할수록 교사와의 관계가 좋았고($r=.29$, $p<.0001$), 부모와의 의사소통과 교사와의 관계가 좋을수록 또래관계가 원만한 것으로 나타났다($r=.29$, $p<.0001$). 교내외 활동에 많이 참여할수록 또래관계 역시 원만한 것으로 나타났다($r=.18$, $p<.0001$).

성, 부모와의 의사소통, 교사와의 관계 그리고 교내외 활동이 또래관계에 미치는 상대적인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6>에 의하면, 성, 부와의 의사소통, 모와의 의사소통, 교사와의 관계 그리고 교내외 활동 변인에 의하여 또래관계 변량의 18%가 설명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래관계에 성(β =.18, $p<.0001$), 부와의 의사소통(β =.16, $p<.05$), 교사와의 관계(β =.25, $p<.0001$) 그리고 교내외 활동(β =.16, $p<.0001$)이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성, 부와의 의사소통, 교사와의 관계와 교내외 활동경험이 또래관계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변인임을 알 수 있다.

4-2. 성별로 부모와의 의사소통, 교사와의 관계와 교내외 활동이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부모와의 의사소통, 교사와의 관계와 교내외 활동이 성별로 또래관계에 어떤 영향력을 발휘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성별로 회귀분석을 하였다.

<표 5> 변인들간의 상관관계

변 인	1	2	3	4	5	6
1. 성별a	-					
2. 부와의 의사소통	-.05	-				
3. 모와의 의사소통	.05	.81****	-			
4. 교사와의 관계	-.22****	.29****	.29****	-		
5. 교내외 활동	-.10*	.07	.09	.11*	-	
6. 또래 관계	.11*	.29****	.29****	.29****	.18****	-

*p<.05 ****p<.0001
a 성별 남자=1, 여자=2

<표 6> 성, 부모와의 의사소통, 교사와의 관계와 교내외 활동이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귀분석

종속변인	독립변인	b	β
또래관계	성	5.35	.18****
	부와의 의사소통	.20	.16*
	모와의 의사소통	8.69E - 02	.07
	교사와의 관계	.49	.25****
	교내외 활동	1.30	.16****
R^2		.19	
Adj- R^2		.18	
F		20.28****	

*p<.05 ****p<.0001

가) 남학생

<표 7>에 의하면, 부와의 의사소통, 모와의 의사소통, 교사와의 관계 그리고 교내외 활동이 남학생의 또래관계 변량의 15%를 설명해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와의 관계(β =.22, p<.0001)와 교내외 활동(β =.17, p<.01)이 또래관계에 매우 의미 있는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모와의 의사소통은 교사와의 관계와 교내외 활동을 통제한 가운데 남학생의 또래관계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남학생의 또래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대한 회귀분석

종속변인	독립변인	b	β
또래관계	부와의 의사소통	8.93E - 02	.07
	모와의 의사소통	.21	.15
	교사와의 관계	.46	.22****
	교내외 활동	1.35	.17**
R^2		.17	
Adj- R^2		.15	
F		12.24****	

**p<.01 ****p<.0001

<표 8> 여학생의 또래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대한 회귀분석

종속변인	독립변인	b	β
또래관계	부와의 의사소통	.29	.25*
	모와의 의사소통	- 1.11E - 02	-.01
	교사와의 관계	.50	.26****
	교내외 활동	1.30	.15*
R^2		.19	
Adj- R^2		.18	
F		11.75****	

*p<.05 ****p<.0001

나) 여학생

<표 8>에 의하면, 부와의 의사소통, 모와의 의사소통, 교사와의 관계 그리고 교내외 활동이 여학생의 또래관계 변량의 18%를 설명해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학생과 마찬가지로 여학생도 역시 교사와의 관계(β =.26, p<.0001)와 교내외 활동(β =.15, p<.05)이 또래관계에 매우 의미 있는 영향력을 갖고, 또한 부와의 의사소통(β =.25, p<.05)이 여학생의 또래관계에 의미 있는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 모 모두와의 의사소통 수준이 남학생의 또래관계와 관련이 없었던 것과는 달리, 여학생의 또래관계는 부와의 의사소통과 관련이 있었다.

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부모와의 의사소통, 교사와의 관계 그리고 교내외 활동경험이 청소년의 또래관계와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를 탐색하여 청소년들

의 바람직한 또래적응을 이해하고 그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수행되었다. 연구문제를 중심으로 연구결과를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또래관계는 부모 두 분을 합한 것과, 부, 모 각각과의 의사소통 정도 상·중·하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어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긍정적이고 원활할수록 또래와 원만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이는 부모와의 의사소통 과정에서 자신의 의사를 주저하지 않고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분위기 속에서 부모로부터 지지 받는 긍정적인 의사소통이 자녀의 교우관계에 도움을 주고 있음을 의미해, 부모-자녀간 긍정적 의사소통이 교우관계와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인 서명성(1998)의 기존의 연구결과를 재확인해준다. 또한 자녀의 기분상태를 주의 깊게 살펴주고 자녀의 질문에 정직하게 대답 해주는 부모와의 원만한 의사소통이 사회세계가 확대되는 청소년기에 대인관계를 원활하게 하는데 도움을 주고 청소년의 사회성 발달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을 말해준다. 그러므로 청소년기 자녀를 둔 부모는 자녀가 사회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자녀의 말을 적극적으로 잘 들어주고 대화의 내용에 관심을 갖는 등 평소 바람직한 의사소통의 본이 되는 부모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둘째, 교사와 친밀감이 높은 상위 집단이 중·하위 집단보다 또래와의 관계가 원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사와의 관계가 중·하위인 집단은 같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교사와의 관계가 친숙하고 호의적일 때, 즉 자유롭게 대화를 나눌 수 있고 이해와 사랑을 주시는 선생님이 계시고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도움이나 충고를 구할 수 있는 선생님이 계실 때 청소년의 또래관계도 원만함을 알 수 있는데, 이는 교사의 행동과 교사와의 관계가 학생의 또래관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명숙(1996)의 연구와 교사와의 인간관계를 긍정적으로 지각하는 학생들이 학교생활에서 적응을 잘한다고 한 황순필(1997)의 연구결과와도 맥락을 같이 한다.

교사와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지각한 학생들이 자신의 모습이나 학급에서의 자신의 행동에 만족하고 심리적으로 안정되어 있다는 연구결과를 보더라도(황순필, 1997), 인생을 살아가면서 청소년이 좋은 선생님을 만난다는 것은 좋은 부모를 만나는 것 이상으로 인생의 좋은 밑거름이 될 수 있다. 사제지간의 인간관계가 형식적이고 기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현장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교사는 자신과의 원만한 관계가 청소년의 원만한 또래관계와 관련이 있음을 자각하여 학생과 대화의 폭을 넓히고 학생의 어려운 점이나 요구 및 필요를 살피고 사랑으로 보살펴주는 교육자의 사명을 다시금 새겨야 함을 일깨워 주는 연구결과라 생각된다.

셋째, 학교내외에서의 세 가지 활동 즉 임원, 책임 그리고 청소년 단체활동 경험의 상·중·하에 따라 또래관계가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즉 교내외 활동 경험이 많을수록 또래관계가 잘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청소년의 또래간 상호작용을 일으킬 교실 안에서 임원이나 책임 그리고 청소년의 단체활동경험이 또래와 상호작용하는 기회와 시간을 증대시켜 또래들과 원만하게 지낼 수 있는 경험을 쌓게 하고 사회적 기술을 획득하게 하는 계기를 마련해 줄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이는 청소년들의 교내외 활동이 그들의 또래관계 적응에 유익함을 말해준다.

넷째, 성, 부모와의 의사소통, 교사와의 관계와 교내외 활동경험이 또래관계에 미치는 상대

적인 영향에서, 또래관계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변인은 성, 부와의 의사소통, 교사와의 관계 그리고 교내외 활동경험으로 나타났다. 반면 모와의 의사소통은 의의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성, 모와의 의사소통보다는 부와의 의사소통, 교사와의 관계 그리고 교내외 활동경험이 또래관계에 영향을 주는 주요 변인임이 밝혀졌다. 모와의 의사소통보다 부와의 의사소통이 또래관계에 영향을 준다는 결과는 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표 1>을 볼 때, 아버지와의 하루 대화시간이 30분 미만인 학생이 50%이상이고, 어머니와의 대화시간이 30분 미만인 학생이 24.3%여서 둘간에 비교된다. 또한 아버지와의 의사소통 만족은 보통이하가 58.8%, 대체로 만족, 매우 만족한다는 학생이 41.1%이고, 어머니와의 의사소통 만족도 보통이하가 36.4%, 대체로 만족, 매우 만족한다는 학생이 63.6%인 점을 감안할 때, 청소년의 바람직한 또래관계 형성을 도와주기 위한 가정내에서의 아버지 역할에 대한 인식과 아버지의 청소년 자녀에 대한 애정 어린 관심이 요구됨을 보여준다. 한편 성, 부모와의 의사소통과 교내외 활동경험을 통제한 가운데 교사와의 관계가 또래관계에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결과는 교권추락의 사회현상으로 교사와의 신뢰감이 낮아지고 소원해지는 현시점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남학생의 경우, 부모와의 의사소통 정도는 교사와의 관계와 교내외 활동경험을 통제한 가운데 또래관계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나, 교사와의 관계와 교내외 활동경험은 또래관계에 의미 있는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실내에서 교사와 학생간의 상호작용과 그 과정에서 교사의 행동은 교우선호 및 배척에도 영향을 미치며 아동의 사회적 지위결정에도 영향을 준다고 한 김주엽(1992)과 이명숙(1996)의 연구결과처럼, 청소년의 또래관계에 미치는 교사의 영향은 매우 클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청소년이 가정을 벗어나 주로 학교사회에서 지내기 때문에 교사와의 원만한 인간관계와 교내외 활동 경험정도가 또래관계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함을 보여준다.

여학생의 경우에도, 남학생과 마찬가지로 교사와의 관계와 교내외 활동경험이 또래관계에 매우 의미 있는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부와의 의사소통 또한 또래관계와 의미 있는 관계가 있음이 밝혀졌다. 즉 남학생의 원만한 또래관계는 부모 모두와의 의사소통과 별 관련이 없지만, 여학생에게 있어서는 교사와의 관계와 교내외 활동과 더불어 부와의 의사소통이 또래관계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매우 흥미로운 결과이다. 이런 성차이는 본 연구에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교사와의 관계를 더 원만한 것으로 지각하고 교내외 활동에 더 참여하고 있음을 볼 때, 남학생은 여학생보다 가정 안에서 보다 가정 밖에서 또래관계 기술을 습득할 기회가 많았기 때문일 수 있다. 또한 이는 남녀의 다른 사회화 과정으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결과로 사료되나 본 연구로 그 이유를 명료하게 밝힐 수는 없어 이성의 부모와의 의사소통과 청소년 자녀와의 관계에 대한 후속 연구를 기대해 본다. 이는 또한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 증진을 위해 특히 청소년 딸을 가진 아버지가 관여된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부모와의 의사소통, 교사와의 관계 및 교내외 활동은 청소년의 또래관계와 깊은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고, 특히 교사와의 관계와 교내외 활동이 주요변인으

로 나타나 청소년의 원만한 또래관계를 위한 학교환경개선에 관심을 가져야 하겠다. 또한 여학생의 경우 아버지와의 의사소통 증진도 이들의 또래관계 개선과 발달을 위해 고려되어야 하겠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 및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생각할 수 있다. 첫째, 본 연구대상이 한 도시에 소재한 중학교 1, 2학년 학생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연구결과를 일반화시키는데 무리가 있어, 전국규모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그리고 청소년 전기, 중기와 후기 등으로 나누어 보다 폭넓은 청소년의 또래관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의 도구는 조사 대상자 스스로가 자신의 부모-자녀관계, 교사와의 관계 그리고 교내외 활동경험을 보고한 것으로 주관적인 자기평가에서 보일 수 있는 신뢰성의 한계가 있다. 특히 교내외 활동에 대해 주관적인 응답을 요구했는데 객관적 근거를 통해 측정해 본다면 보다 다양한 차원의 교내외 활동 자료를 얻을 수 있겠다. 그리고 부모-자녀 의사소통, 교사와의 관계와 교우관계 측정에서 청소년 자신의 지각에만 한정시키지 않고 부모나 교사 또는 또래의 지각을 첨가한다면 보다 더 신뢰로운 연구가 될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교내외 활동경험으로 학교내외의 활동경험을 합쳤으나 학교내외 환경 속에서 청소년의 원만한 또래관계의 유지와 발전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청소년의 교내외 활동을 구분한 연구가 계속 필요하다.

이상과 같은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가 갖는 의의는 청소년의 원만한 또래관계의 유지와 발전을 위하여 또래관계와 가정과 학교내외 생활 변인들과의 관계를 밝혀 가정에서의 자녀교육과 학교에서의 청소년 교육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는 데 있다.

참고문헌

권이종(1988). 사회교육 및 청소년 프로그램 편람. 서울: 교육과학사.

김기선(1994). 사회성 측정적 지위로 본 인기아와 고립아의 성격특성과 자아개념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미경(1996). 청년기에서의 성역할 정체감과 교우관계 양상간의 관계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미호(1989). 부모와 자녀간의 의사소통 및 자녀의 사회적 행동 특성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성태(1985). 발달 심리학. 서울: 법문사.

김정선(1995). 어머니와 고등학생 자녀간 의사소통과 자아 존중감.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 논문.

김주엽(1992). 교사의 피드백이 아동들의 또래 선호에 미치는 영향. 국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도현심(1998). 인성특성 및 또래에 의한 괴롭힘과 청소년의 외로움간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36*(12). 1-9.

도현심(1999). 부모에 대한 애착 및 또래경험과 초기 청소년의 외로움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20*(3), 33-49.

민하영(1991). 청소년 비행척도와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 가정의 응집 및 적응과의 관계.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서명성(1998). 부모자녀간 의사소통과 학교적응과의 관계 연구.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송현섭(1986). 자아개념의 교육심리학적 의미. *교육심리연구,* 10(1), 1-24.

심희옥(1999). 아동과 청소년의 사회적 기술과 가족, 친구의 지원 및 적응과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37(6). 11-22.

이경수(1991). 학교상황 내에서의 호감아와 배척아의 비교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규환(1976). 교육사회학. 서울: 배영사.

이명숙(1996). 교사의 기대가 학생들의 학업성취와 교우관계에 미치는 영향.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연숙(1991). 가족체계 및 어머니-자녀 의사소통과 청소년 적응과의 관계. 전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영분(1983). 어머니 교육을 통한 부모-자녀간의 갈등적 관계 개선에 관한 실험 연구-Thomas Gorclon의 모델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 학위논문.

이춘재, 곽금주(2000). 집단따돌림 경험 유형에 따른 자기개념과 사회적지지.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3(1), 65-79.

이해경, 김혜원(2000). 폭력노출이 집단괴롭힘 가해와 피해행동에 미치는 영향: 심리적 변인들과의 상호작용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3(1), 95-113.

임정하(1996). 아동이 지각한 또래관계와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임지영(1997). 또래 괴롭힘이 아동의 외로움과 불안에 미치는 영향. 경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조금석(1997). 부모의 양육태도,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 행위적 영역의 학습 습관과의 관계. 건국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최보가, 임지영(1999). 또래 괴롭힘이 아동의 외로움과 불안에 미치는 영향: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7(5), 111-121.

한종철, 김인경, 김은정, 박윤창, 정태연(1999). 또래 따돌림과 심리사회적 부적응: 1차 연구.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대회 학술발표 초록집*, 147-150.

황복연(1984). 청소년 단체활동이 중학생의 성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황순규(1998). 부모자녀간 의사소통과 가정환경 변인 및 아동의 자아개념과의 관계연구.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황순필(1997). 고교생이 지각한 교사-학생 인간관계와 자아개념 및 정신건강과의 관계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Asher, S. R., & Wheeler, V. A. (1985). Children's loneliness: A comparison rejected and neglected peer statu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3,* 500-505.

Austin, S., & Joseph, S. (1996). Assessment of bully/victim problems in 8 to 11 year-olds. *British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66, 447-456.

Barnes, H. L., & Olson, D. H. (1982).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Scale. In D. H. Olson et al., *Family inventories: Inventories used in a national survey of families across the family life cycle*(pp. 33-48). St. Paul: Family Social Science, University of Minnesota.

Berndt, T. J. (1979). Developmental changes in conformity to peers and parents. *Developmental Psychology, 15*(6), 608-616.

Brown, B. B., & Mount, N. (1989). *Peer group structures in single versus multiethnic high schools.* Paper presented at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meeting, Kansas City, Mo.

Dubow, E. F., & Ullman, D. G. (1989). Assessing social support in elementary school children: The survey of children's social support.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18*(1), 52-64.

Dusek, J. B., & Joseph, G. (1983). The base of teacher expectancies: A meta-analysis.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75,* 103-109.

Heinz, L., & Sippola, L. (2000, March). Mediators of the Effect of Extracurricular Activities on Affective Adjustment Following the Transition to High School. Poster Presented at the biennial meeting of the Society for Research on Adolescence, Chicago, Illinois.

Olson D. H. (1983). Circumplex model of marital and family system VI: Theoretical update. *Family Process, 22*, 69-83.

Olweus, D. (1993). *Bullying st school: What we know and what we can do*. Cambridge, MA: Blackwell.

Parkhurst, J. T., & Asher, S. R. (1992). Peer rejection in middle school: Subgroup differences in behavior, loneliness, and interpersonal concerns. *Developmental Psychology, 28*(2), 231-241.

Petersen, A. C. (1988). Adolescent development. *Annual Review of Psychology, 39*, 583-607.

Rigby, K. (1996). Bullying in schools and what to do about it. Pennsylvania: Jessica Kingsley Publishers.

<신문기사>

동아일보 2000. 3. 13. 30면